

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유시민 | 시사평론가 · 성공회대 겸임교수

집집마다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가지게 되면 극장은 다 망할 거라고들 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영화는 역시 극장에서 봐야 제맛이 나는 법이다. 그렇고 그런 할리우드의 총싸움이야 어디서 보나 상관없다. 하지만 시베리아 설원을 가르며 달리는 영화 <의사 지바고>의 증기기관차나 수직으로 가리앉은 타이타닉은 역시 눈앞을 가득 채우는 대형화면으로 봐야 제 맛이 나지 않겠는가.

컴퓨터가 집집마다 보급되고 초고속 통신망이 확산되면 CD롬과 인터넷이 종이에 잉크를 문혀 만드는 책을 박물관으로 밀어내고 말 것이라는 예견 역시 빛나갈 확률이 높다. 책은 무역회사의 결제서류와는 다르다. 책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글쓴이의 영혼과 시대의 정신을 실어 나르는 독립적인 문화양식이다. 책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다.'

세계 수준에 올랐다는 우리 기업들은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지 않은 초경량 노트북을 선보인다. 하지만 노트북이 제 아무리 가벼워진들 dot자리를 깔고 목침을 베고 누워서 읽을 수야 없는 일이다. CD롬 하나가 책 수십 권 분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지만, 지리산 계곡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허름한 진바지 뒷주머니에 꽂아 나서는 조그맣고 얇은 시집을 어찌 대신할 수 있으랴. 출근시간 지하철 전장 손잡이에 한 손을 매단 채 문고판 소설책을 읽는 재미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 또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리라.

세로쓰기로 조잡하게 인쇄한 세계명작전집을 손에 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는 언제나 책을 달고 다녔다. 아니, 거꾸로 책이 날 끌고 다녔는지도 모른다. 컴컴한 반지하 자취방과 전방 소총소대의 내무반, 0.7평짜리 독방과 이국 땅의 학생기숙사에서 책이 거기 있었기에 나는 혼자 가 아닐 수 있었다. 유난히 긴 늦여름의 별이 오후 내내 공기를 달구는 찜통 같은 방에서 하루를 보내는 지금도 책은 쓸데없는 외출과 술자리에서 나를 지켜주는 충실한 벗이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 어디에선가 나무를 베어야만 한다는 건 분명 슬픈 일이다. 하지만 나무만 있고 책이 없는 세상은 나무는 없고 책만 있는 세상만큼이나 끔찍할 것이다.

책은 단순히 종이에 담은 정보 꾸러미가 아니다. 판형과 표지, 글자꼴과 편집의 모양새, 읽는 시간과 분위기에 따라 같은 내용도 무척 다른 맛을 내는 게 책이다. 단번에 읽어치우기가 아까워 조금씩 되도록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는 책의 손때 묻은 자국은 정신의 폭과 깊이가 늘어난 귀한 흔적이다. <위대한 지식인들에 관한 끔찍한 보고서>, <지금 우리에게 공부란 무엇인가>,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나는 이 세 권의 책을 요 며칠 제일 손 잘 닿는 곳에 놓아두었다. 외출할 때 들고 가는 가방, 화장실 선반,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위에 하나씩 놓고 째짤이 손때를 묻히는 중이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하고, 그 노동시간의 대부분을 책읽기로 채우는 프리랜서에게 책은 또한 몸의 양식이기도 하다. 공부를 업으로 삼는 분들은 '내적 자기완성'이라는 전통적 목표와 '사회적 효용의 추구'라는 새로운 요구 사이에서 '나에게 공부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모양이다. 그런 면에서 프리랜서는 행복하다. 공부가 즐거운 노동이요,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으면 자아실현도 할 수 없는 '프로 공부꾼'이기 때문이다. 책 만드는 모든 이에게 찬사를!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 · 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영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